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2013 년 부터 서로에게 사역은 공식적으로 **청년부/English Ministry** (합하여 “Young Adults”)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 청년부/EM 이라는 말의 의미

청년이라는 말은 대학생 이상인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혼자 미혼자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English Ministry (EM)이라는 말은 영어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말합니다. 나이도 상관없이 자원으로 참여하는 곳입니다.

청년부와 English Ministry 가 합한 것이 Young Adults (젊은 어른들)이라고 하는 거입다.

그러므로, 주 예수 사랑 교회에서는 2013 년도 부터 “청년부”나 “English Ministry”나 “Young Adult”라는 말을 하실 때에는 같은 **서로에게** 청년/영어 사역은 말하는 것입니다.

$$\begin{array}{r}
 \text{청년부} \\
 + \quad \text{EM} \\
 \hline
 \text{Young Adults}
 \end{array}$$

### 2012 년도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

#### God’s grace of 2012 (what God has accomplished through us)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로 부족하지 않았습다. 우리 인원수는 계속 자랐으며, 아직도 더 들어 온다는 소식들이 많습다. 우리 사역안에 이번 해에 여러 문화들이 설정 되었습니다. 몇가지를 말한다면: 서로를 위한 기도, 매주 합심 금식, 여러 소셜 모임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위한 모임), 주일 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하기, 매년 부흥 집회 (중요한 사랑),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 만들기, 등등

God has been demonstrating His grace heavily this year. Membership base has grown exponentially and there is still news about more people joining. We have established several cultures for our ministry. To name a few: Prayer for One Another, weekly joint fasting, various Social Events (to reach others that normally do not attend church), consistent weekly Bible Study gatherings, Annual Revival Event (The Love That Matters), outreach to the poor, and many others.

- 서로를 위한 기도는 4 월 8 일 2012 년에 시작 되었습니다. 매달 마다 (마지막 주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사이에 임제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 할때 기적을 보이십니다 (우리 몇 명은 이 기도를 통하여 그 기적을 경험하며 받았습니다) Prayer for One Another has been established on 8Apr12. This is to be a monthly event (last week of each month), where we simply pray for others. God is in our midst as we pray together, and He can work miracles as we pray for others. (and for some of us, He already has)
- 북한이 우리의 선교의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아직은 그 나라에 들어 갈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Liberation in North Korean (LiNK)라는 북한에 불쌍한 사람들이 탈출 할수 있도록 돕는 조직과 연결 되었으며, 우리의 헌금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현재 북한으로 들어 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our mission country. Though we have not yet found a way for insertion, we have been in contact with organizations such as “Liberation in North Korea (LiNK)” to contribute our funds for support. We are looking into mission opportunities in North Korea to see the conditions in that country.
- 9 월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돈을 모아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Simple Way 라는 조직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갖고 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In September 2012, we gathered money together, as offered from our hearts, to donate to The Simple Way,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youths in poverty in Philadelphia, PA. This enabled the children to start school with proper school supplies.

- 우리는 주일 오후 1:30 마다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이번 년도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구했습니다. 곳 성경 공부가 됐고, 읍기를 전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사용하며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e now have consistent 1:30pm gatherings, which has now evolved to deeper Bible studies. We began the year in a position of humility asking God which way our group should go. Then we went through the entire book of Job, then we concluded the year studying the book “Experiencing God” – we look forward to more in 2013.
- 우리는 2012 년도에 여러 소셜 모임들을 갖었습니다. 이 모임들은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며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교회 밖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한가지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공적인 결과를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참석했으며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두 사람은 우리 소셜 모임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 12 월 22 일에 두분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We had various social events, with the intent to mingle and be in relationship with others outside the church. We are called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is has enabled us to reach outside our church walls. This has been a huge success! People that normally do not attend church joined those gatherings allowing us to get to know them. One couple met through one of our events, and have been demonstrating what God’s grace looks like to others – they are happily married now as of 22Dec12.

## 서로에게 2013 년에 비전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개역한글)*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학교,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임제하심을 삶으로 보이며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v.2),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데로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13-16).

## 청년부/EM 을 돕고 지원해주실 분들에서

- 모범이 (role model)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은 아직 삶을 꾸며가는 자들입니다. 삶을 경험하신 분들의 삶을 보며 좋은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며 배우고 살게 됩니다. 실패한 깨진 세상보다는 믿는 자들이 좋은 삶을 보이며, 젊은이들에게 조언도 해주시며 가리켜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모범이 되어 되는 부분들은: 결혼 관계 (부부로서 서로를 대하는 맘과 방법),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결정하는 방법,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
- 모임 곳을 준비해주세요. 청년들은 더욱 바쁠수록 더 모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모이는 장소는 교회도 언제나 충분하지만, 교회를 다녀 보지 않던 자들에게는, 어쩔때는 교회를 매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안전하게 느껴지는 사랑의 가정이 사는 집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한 부부들과 부모님들이 자주 싸우는 곳에서 자란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을 경회하는 화목한 가족들의 집에 가서 안전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이런 장소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년들은 교회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성가대는 이런 이유로 못한다; 찬양팀; 앞에 안내하는 사람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벌써 축복 받았습시다. 사소한 일로 교회를 비평하지 말고, 오히려 불편함을 무시하고 다음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2013 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2012 년의 행사들 (Events of 2012):

- 7Jan12 (Saturday)  
재숙 자매님이 교회에서 young adult 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 했습니다.  
Jae Sook prepared dinner for young adults at church
- 14Jan12 (Saturday)  
Mountain Creek 에 가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우리 여러명은 처음으로 가서 굴르고 다치기도 했지만, 너무 재미 있어서 또 하러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교회를 보통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진영 형제님이 우리 모임을 여기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We went to Mountain Creek to ski/snowboard – many of us for the first time (we stumbled down hills, got hurt, but had such a fun time that we had to do it again!). We had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people that do not attend church. Tommy Kim joined us for the first time.
- 5Feb12 (Lord's Day)  
Shed 라는 모이는 장소에서 함께 pizza 를 먹으면서 Superbowl (미국 축구)를 봤습니다.  
We met at the shed to watch the Superbowl together with pizza.
- 3Mar12 (Saturday)  
다시 Mountain Creek 에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모였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We went to Mountain Creek again. We had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several people that do not attend church.
- 1Apr12 (Lord's Day)  
전도 실행을 해봤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서로에게 t-shirt 가 처음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는 한아름, 한양과 Broad Ave 에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We attempted street evangelism at H-Mart, Hanyang, Broad Ave. We had our first set of T-shirts made for this event.
- 8Apr12 (Lord's Day)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이 날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Prayer for One Another began.
- 6Jun12 (Wednesday)  
합심 금식이 이 날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아직도 수요일마다, 새벽 12 시 부터 오후 12 시 까지 (12 시가)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같이 한 마음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Joint Fasting began. This is still on-going today, every Wednesday morning from midnight to noon (12am – 12pm)
- 23Jun12 (Saturday)  
Mohonks Mountain Preserve 에 하이킹하러 갔습니다. 이런 소셜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 나눠져서 각자 하나님과에 시간을 갖았습니다. Iris Kwak 자매님이 우리 모임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We went on a hike at Mohonks Mountain Preserve. Another major social event that attracted people that normally do not attend church. We had various interactions along the way and were able to develop new relationships. We spent time in individual prayer once we got to the peak of the mountain. Iris Kwak joined us for the first time.
- 26Jul12 (Thursday)  
이번에는 Six Flags Great Adventure 으로 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특히 이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1 년 동안 일본에 가서 보지 못한 Ayako 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Ayako 가 남편도 데리고 와서 함께 좋은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We went to Great Adventure. We had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several people that do not attend church. Ayako joined us again after being away for over a year, this time with her husband. We had a blast.
- 25Aug12 (Saturday)  
Brazilian BBQ 를 광고하며 Tallman State Park 에서 모였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위대한 요리사 노태규 (Daniel No) 가 준비하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We had Brazilian BBQ at Tallman State Park – food was prepared and cooked by our special chef Daniel No.
- 9Sep12 (Lord's Day)  
많은 정보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신문에 본데로 집 없는 사람들이 Newark 에 있다고 해서음식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가 봤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Penn Station 은 다른 기차역과 틀린 것이 없게 생겼었고, 우리 정보가 틀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음료수를 가지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음식들은 순식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Without much knowledge, simply with the desire to help the poor, we prepared food and drinks and visited Newark, NJ to see if homeless people really gathered there. Upon first glance, Penn Station looked like a normal train station with just common people. When we brought the food and drinks, many people lined up, and we ran out of supplies to give out in very short time. We prayed for them and agreed to come back more prepared.

- 13Sep12 (Thursday)  
만하탄에 배 타러 갔습니다. 우리의 소문난 커플, 보라와 태용이 만난 소셜 모임이었습니다.  
We went on a boat ride in NYC – this is where our infamous couple, Bora and Tae Yong, met.
- 23Sep12 (Lord's Day)  
즉석 모임이었습니다. Overpeck Park 에서 모이기 위하여 각자 집에서 2 인분씩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 배부르게 먹고 서로의 입제함을 즐겼습니다.  
We had an impromptu picnic at Overpeck Park. Individuals prepared food from home for at least two people. We all had our full and we enjoyed the presence of each other.
- 7Oct12 (Lord's Day)  
NYC 힐송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운영하며 한국 교회보다 틀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도 방문 할 생각입니다.  
We visited Hillsong Church in NYC together. This enabled us to see how churches can be run differently. We plan to visit other churches in the near future to expand our views on worship.
- 14Oct12 (Lord's Day)  
Newark 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또 한번 힘들어 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며 먹고 마실 것을 제공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음식과 음료를 3 배 넘게 준비하였지만, 똑같은 속도로 우리의 준비한것들이 없어 졌습니다. 그 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눴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 후로, 운명적 집사님이 2 주마다 소그룹으로 Newark 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로 정해졌습니다.  
We visited the Homeless in Newark together again. We got to interact directly with those in need and provided food and drinks for them. This time, we prepared three times as much food and drinks; however, we ran out of supplies just as quickly, as there were that many people that were seeking help. We opened dialogue with some of them and had a chance to develop a deeper relationship. From this day forward, Deacon Myung Sik Yoon volunteered to visit every two weeks to continue to develop a consistent relationship.
- 21Oct12 (Lord's Day)  
또한 즉석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Bear Mountain 에 가서 가을 나뭇잎 환경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Another impromptu trip – we went to Bear Mountain and had our service outdoors in the midst of leaves in Fall.
- 28Oct12 (Lord's Day)  
김현숙 권사님이 우리를 초대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열린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으로 해보는 부흥회를 준비하였습니다.  
Deaconess Kim Hyun Sook invited us over. We had open discussions and made plans for the upcoming revival, which we were attempting to hold for the first time.
- 9Dec12 (Lord's Day)  
young adult들의 처음 부흥 집회를 실행했습니다. 우리 멤버 수는 많지 않았지만, 진행이 우리가 상상했던것 보다 잘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교회를 보통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곳에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웹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www.thelovethatmatters.com>  
We held our first young adults revival. Regardless of how few we were, it was a positive turn out, more than we had expected. Through this event, we were able to invite people that normally do not attend church, and the Gospel was shared. God worked His grace there. More info at <http://www.thelovethatmatters.com>
- 16Dec12 (Lord's Day)  
우리 은혜가 풍성한 김현숙 권사님이 우리를 다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처음으로 진행한 부흥집회에 대하여 서로 나눴습니다. 좋았다는 의견으로 매년마다 “중요한 사랑” 부흥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런 편한 장소에서 모이게 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e were again invited by deaconess Kim Hyun Sook. We shared our views and experiences of our first revival event and sought to look forward to future revival events. We had some personal conversations and got to know each other better. We need more of this!
- 22Dec12 (Saturday)  
보라 자매님과 태용 형제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은혜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2013 년에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Bora and Tae Yong got married. This is one of the many graces God has shown in our ministry. We look forward to more of this grace in 2013.
- 31Dec12 (Monday)  
2012 년에 받은 은혜를 함께 감사하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험했습니다.  
We gathered together to give thanks to God for all His grace toward us in 2012. We all experienced that God's love for us never fails.